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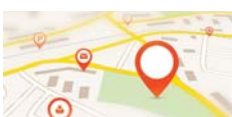


맨손 고기잡기로 여름 추억 차곡차곡



3~4일 금능해수욕장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원담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제12회 금능원담축제가 열린다. 112 금능리 해변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0회 금능원담축제에 참가한 관광객과 도민들이 제주의 전통 어로방법인 원담에서 물고기 맨손잡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금능리 제공 사진=한라일보DB



제주 핫플레이스 (50) 제12회 금능원담축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곳곳에서 바다축제들이 한창이다. 비양도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원담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3일과 4일 이틀간 펼쳐지는 금능원담축제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원담고기잡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포인트다.

금능원담축제는 금능리 주최, 금능원담축제추진위원회 주관, 한림읍 후원으로 올해 열두 번째를 맞고 있다. 백난야기념사업회와 한림읍이 주최·주관하는 제10회 백난야가요제도 함께 열린다.

원담은 밑물에 물려둔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돌담이다. 즉,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담을 쌓기도 하는데, 금능에는 이런 원담이 4개가 있었다고 한다.

잔자갈이 많은 곳은 소원이라고 불렸고, 물이 없어 항상 말라 있다고 이름 붙여진 마른원과 주택가 바로 밑 바닷가에 있어 집알원, 자우락이란 지명 이름을 딴 조르기원까지. 이 중 소원과 마른원

3~4일 금능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 선진그물체험·공연 등 행사 다채 4일 저녁엔 '백난야가요제' 열려

이 현재 보존되고 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원담을 지키고 보존해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바로 원담축제다.

축제 개막식은 3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지만 오전 10시부터 체험장과 전시장(원담홍보전시관, 한수품문화회 시화전)이 운영된다. 오후 2시와 4

시 인형극공연 후 오후 7시부터 금능풍물단과 시극의 식전행사공연이 펼쳐진다.

개막식 축하공연 무대는 한울해금양상בל과 뚜렷부러더스가 채운다. 이어지는 특설무대공연에는 프리지아 밴드, 한림수협색소폰동아리, 체희, 듀엣 올로가 출연하며, 밤 10시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바로 이어 전통어로잡이를 재현한 선진그물체험행사가 25분 정도 진행된 후 사우스카니발의 또다른 특설무대가 한여름밤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원담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원담체험 행사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밖에 소라껍데기 화분만들기체험, 방수휴대전화케이스 만들기 체험, 해녀인형 체험, 테우모형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원담국수, 강이튀김, 전복구이 등 갖가지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제10회 백난야가요제는 4일 오후 7시30분부터 특설무대 공연에서 진행된다. 제2회 백난야를 꿈꾸는 본선 참가자 10팀의 경연과 초대가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15) 김수열 시 '물에서 온 편지'



2014년 4월 산지향 방파제에서 열린 찾아가는 4·3 해원 상생극. 김수열 시인은 '물에서 온 편지'로 4·3 당시 수장 희생자와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했다.

"파도 치면 내가 우는가 돌아보거라"

2014년 4월 산지향 방파제 세월호 영혼들도 머문 날 찾아가는 해원극관서 낭송

'물에서 온 편지'를 만난 건 5년 전이다. 제주민예총이 4·3문화예술축전 행사로 해마다 진행하는 '찾아가는 해원 상생극'이 제주시 산지향 제2부두 방파제에서 열렸을 때다.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고/ 살아서 내가 있는 거긴 지번을 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 보낸다// 아들이/ 올레 밖 삼도전거리 아릅드리 폭

낭은 잘 있느냐/ 통시 옆 멸구슬은 지금도 잘 여무느냐/ 눈물보다 콧물이 많은 말쑥놈은/ 아직도 연날리기에 날 가는 줄 모르느냐/ 조반상 받아 몇 술 뜨다 말고/ 그

놈들 손에 끌려 잠깐 갔다 온다는 게/ 아, 이 세월이구나/ 산도 강도 여섯 구비 훌쩍 넘었구나'. 김수열(1959~) 시인은 4·3 희생자인 '젊은 아비'가 아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형식으로 써나간 시를 읊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아들은 어느덧 '나보다 더 훨씬 굵어버린' 나이가 되었다. 재일 김시중 시인의 장편시 '니이가타'가 직접 목격한 수장 희생자들의 실상을 담아 냈다면 김수열의 '물에서 온 편지'는 그 희생자가 시작 화자가 되어 뒤늦은 이별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 시를 표제로 올린 시집(2017) 등 시인은 제주섬의 학살을 줄곧 문학에 녹여왔다. 빼어난

4·3 시로 꼽히는 '물에서 온 편지'는 단기간 '4·3 학습'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4·3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사유하며 창작해온 시인의 진정성으로 빚어졌다.

이날 해원 상생극은 처음으로 4·3 당시 수장된 영혼들을 위무하려 마련됐다. 수장에 의한 희생은 1948년 11월부터 6·25 발발 직후 예비검속 시기까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물을 달아낸 후 물속에 빠뜨리거나 총을 쏘아 바다에 던졌다. 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숨져갔는지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바닷물에 쓸려 시신조차 찾을 길 없는 '젊은 아비'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물에서 온 편지' 속 아비는 '바람 불면 내가 부르는가, 파도 치면 내가 우는가' 돌아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극관을 차린 날은 2014년 4월 19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사흘 뒤였다. 구전을 떠도는 4월의 영가를 달래는 마당에 세월호의 영혼도 머물렀다. 여객선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시기라 해원극을 집전한 서순실 심방은 "학교에 책가방 들렁가게 해줘서"라며 어린 생명들이 무사히 살아돌아오길 빌었다. '물에서 온 편지'는 4·3이라는 자장 안에서만 읽히지 않는다. 세월호 등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 바다에 잠든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수 상

국민포장



강 봉 기
(서귀포시지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문 영 섭
(서귀포시지회 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



오 동 구
(서귀포시지회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김 희 자
(서귀포시지회 여성협의회장)

총재 표창



오 정 속
(남원읍 여성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5주년 기념 유공조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 회장 부정익 외 회원일동